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준) /경기도교육청 면담 속기록

일시: 2010년 2월 9일(화)

장소: 경기도교육청 후관 회의실

참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상임이사 박경석 상임이사, 간사 박준호, 간사 허신행,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준) 준비위원장 신승우(새움장애인야학), 평택장애인야학, 에바다장애인야학, 채움누리학교, 씨앗학교, 동두천장애인야학, 함께배움야학

○ 14:00 / 상황보고 ○

박경석 상임이사)

- 경기도 장애인야학에서는 지속적인 투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해왔음.
-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이 아닌) 평생교육 담당과에서 협상을 하려고 해왔음.
- 문제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측과 내전(?)이 있음.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도와는 다르게 교육국을 만들어 평생교육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있음. 김상곤 교육감을 견제하려는 목적.
- 이런 것과 맞물려 장애인야학과 관련한 지원은 도에서 할 수도, 교육청에서 할 수도. 지금까지는 각 야학의 지원이 중구난방. 대전은 시에서부터, 노들은 교육청에서... 장애인 야학은 학령기를 놓친 성인. 이에 대한 국가책임은 이야기하면서 서울은 초등교육과의 특수교육 담당에서 지원을 받기 시작했음. 이런 과정 속에서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로 갈 것인가, 교육청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 이런 과정에서 서울은 초등교육 특수교육 담당으로 정리했음. '장애인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
- 장애인야학과 관련한 업무는 지금까지 없었던 업무. 서울은 일찌감치 싸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것. 그래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법적근거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이 되기 전에 지원을 받아 평생교육시설이 된 것.
- 경기도도 지금은 비인가지만 일정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공간을 마련해 평생교육시설로 가야만 이후에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운영비 확보 등은 또 다른 투쟁이 필요한 것.
- 1개 야학당 3000만원씩 9개 야학에 지원해라는 것. 교육청에서의 응답은 200-500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것. 아직도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는 평생교육 쪽으로 정리를 하려는 것. 우리는 특수교육 쪽에서 가야 함.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교육쪽에 방점을 찍고 파이를 늘려나가야 하는 것. 장애인교육 쪽 전달체계로 밀자. 다른 야학의 경우도 있으니...
- 2월 말까지 추경이 정리될 것 같음. 따라서 그 전에 해결해야 함. 워선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을 잘 설명해 해결하자.

신승우 준비위원장) 오늘은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자.

○ 14:30 /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오재용 장학사면담 ○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오재용 장학사) 장학관님은 회의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야학) 우리는 장학관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야학) 오늘 얘기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오재용 장학사)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박경석 상임이사) 저번에 장학관을 만나봤다. 장학관님을 만났었는데, 그 이후에 논의과정이 있었는가?

오재용 장학사) 이 문제는 평생교육과의 문제이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박경석 상임이사) 부서에서 논의한 것인가?

오재용 장학사) 우리의 부서 내에서 한 것이다. 평생교육과에서도 점검을 나갔었다. 그 부서에서 해당되니까 점검을 나간 것이다. 해당요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것.

박경석 상임이사) 무슨 뜻 인지 안다. 부서에서 점검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타지역에서는) 초등교육과에서 (장애인야학지원을) 하지 않느냐.

오재용 장학사) 내부에서 조절을 한 것이지.

박경석 상임이사) 서울은 2004년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들은 정부가 책임을 지지 못했던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

오재용 장학사) 경기도 교육청의 내부적 조율의 문제.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박경석 상임이사) 그렇다. 내부에서 조율할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초등교육과에서 정리를 해도 내부에서 합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오재용 장학사) 평생교육과는 성인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고 있는게 맞다. 내가 알아봤는데, 인천 등도 평생교육과로 넘기려 한다.

박경석 상임이사) 우리는 장애인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 교육전달체계 안에서 해결해야 함.

오재용 장학사) 평생교육과에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초등교

육과는 유치원, 초, 중, 고 지원,관리를 하는 곳이다.

박경석 상임이사) 정확하게 행정체계를 이야기하면 초등에 특수교육만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닌가? 분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초등교육과에서 초중고를 다 하고 있다. 우리 것도 그 쪽에서 맡아가야 한다.

오재용 장학사) 부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쪽에 인프라인지 않은가?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정조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평생교육과에서 충분히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채움누리) 야학단위에 있는 사람들의 과정은 기초 문해교육, 초등, 중등, 고등의 내용이다. 평생교육의 영역이 아닌 학령기 보완교육의 성격으로 봐야한다.

오재용 장학사) 교육기회를 놓친 사람은 우리가 학교를 소개하려고 한다. 내가 회장님의 입장이라면 평생교육과로 가는게 맞겠다.

박경석 상임이사) 전혀 이야기가 안통합니다.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이후

전장야협 경기지부(준) 대표자 초등교육과 사무실에 연좌, 선전물 부착,
특수교육 장학관 면담요청
(14:30~16:45)

박경석 상임이사) 우리는 경기도지역에 있는 장애인야학에 협의체인 경기도 장애인야학 협의회입니다. 교육받지 못한 장애인들에 대한 학교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야학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게 된 배경은 계속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교육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성대 정책사무관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교육감님도 만나뵈었다. 핵심적인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사항이다. 그 과정에서 평생교육쪽과 특수교육쪽에서 서로 말지 않으려고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 있다. 교육감님께도 요구를 전달한 상황이다.

자료에 간단히 정리되어있다. 서울, 인천, 대구에서는 초등교육 특수교육쪽에서 지원을 했다. 노들의 경우에는 특교법 제정 이전부터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2004년도부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도 4억여원이 지원된 바 있다.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기 이전에 지원을 받아 장애인 등에 대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되었다. 특교법과 관련해 이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평생교육쪽으로 가라고 하고 있다. 우리는 평생교육쪽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교법에 따라서 특수교육쪽에서 책임지고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면 고맙겠다.

이것은 법적인 부분이 아니다. 부처간의 조정의 문제다. 우리가 바라보는 부처간 조정의 문제는 이제 특수교육쪽에서 담당을 하려니까 귀찮아 하는 것 같다.

신승우 준비위원장) 작년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었던 부분이다. 올해 들어와서 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쪽에서 지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의되어 이 쪽으로 온 것이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다.

의정부 채움누리) 평생교육은 지속적인 교육. 우리는 기본 공교육을 받지 못한 교육. 우리는 대체교육이다. 따라서 특수교육에서 적용되는 것이 맞다.

오재용 장학사) 평생교육과에서 말아야 하는 것. 평생교육의 개념은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것. 어떤 시도에서는 초등교육과에서 하지만 그 안에서 조정이 된 것. 다른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과로 이관하려는 의도.

박경석 상임이사)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평생교육시설 문제는 이미 평생교육법에 있었다. 그렇게 따지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었다. 이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서울에서는 지원을 했다. 그 때에는 근거도 없었다. 두 달이상 농성을 진행한 이후, 공정택 교육감의 결정으로 지원받은 바 있다. 자꾸 평생교육쪽으로 몰려는 책임 회피를 하지 말아라.

과장)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어느쪽에서 말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 보고 답을 주겠다.

박경석 상임이사) 그렇다면 언제까지 답변을 줄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문제가 없다. 조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수교육쪽으로 해야 한다.

과장) 이것이 정당하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3차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우리가 연락을 주겠다.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는 확답을 못하겠다.

재경 경기공투본 집행위원장) 언제까지 기다려라라기 보다는 대략적으로라도 안을 내야 한다.

과장) 지금 당장은 답을 못하고, 검토 후에 연락을 주겠다.

박경석 상임이사) 벌써 1월달에 장학관에게 전달해 놓은 상황이다. 과장님이 몰랐다는 것은 실무선에서 커트해서 보고조차도 안한 것으로 느껴진다. 내부에서 논의되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장학과 선에서 우리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그 선에서 종결시킨 것. 우리는 윗선까지 소통이 된 줄 알았는데, 1년, 2년의 노력을 그 선에서 무마시킨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불쾌감을 느끼고 마음이 아프다. 장학관을 만나서 몇시간을 이야기했는데..

다음주중에 간담회를 진행했으면 한다. 그 때까지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과장)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야 하는가, 예산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야 한다.

박경석 상임이사) 2월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한다. 다음주 중에 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자.

과장) 정확하게 문서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라.

박경석 상임이사) 이미 전달 했었다. 실무선에서는 이미 다른 자료들도 가지고 있다. 대화만 시작되면 자료는 충분히 드릴 수 있다.

과장) 2월은 힘들다. 검토도 해야한다.

박경석 상임이사) 사례가 없으면 그럴 수 있지만, 이미 사례가 있지 않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은가? 교육정책자의 의지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과장) 정식 시설인지의 여부도 있지 않은가?

박경석 상임이사) 인천의 경우에는 정식 시설등록 이전에도 지원한 바 있다. 평생교육시설 등록 이전에도 양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있는 것이다. 임차료 지원등을 가지고 조건부 형태로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다.

과장) 그건 교장님의 생각. 우리도 윗분들에게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

박경석 상임이사) 교육감님께도 전달이 되어 있다. 부처 간 조정만 끝나면 되는 것이다. 문서는 전달했고, 또 드리겠습니다 2월추경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빠르게 진행하기를 원한다. 과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다니, 마음이 황량하다. 이미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었는데, 모르고 있었다니 참 마음이 아프다.

재경 경기공투본 집행위원장) 장학관님이 중간에서 커트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 것. 우리에게도 늦어지는 일정 때문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정확한 해명이 있다.

과장) 나도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유, 초, 중, 고 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검토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 우리가 얼마만큼 도와준다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겠다.

박경석 상임이사) 과장님이 못나오신다고 하더라도 간담회는 약속해 줘라.

재경 경기공투본 집행위원장) 이번주 내로 간담회의 가능 여부를 알려주기라도 해라.

박경석 상임이사) 우리가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경석 상임이사) 과장님께는 소개를 드렸다. 우리는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야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특수교육 장학관) 수고가 많다. 이렇게 많이 오실지는 몰랐다. 제가 오늘 도교육감 주제로 시도평가 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왔다. 목이 많이 아프다. 일단 말씀을 듣겠다.

박경석 상임이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어서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듯. 과장님이나 교육감님께 보고가 안되어 있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특수교육 장학관) 검토결과 평생교육과에서 다루어 온 것으로 확인했다.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해온 내용을 받았다. 사무관과 이야기한 끝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등록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어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인에 대한 교육지원은 평생교육쪽에서 담당하고 있다. 초등교육과에 있는 특수교육담당 팀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담당. 경기도 야학에 연락을 해서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박경석 상임이사) 정면으로 반대 태도를 취한 것. 교육을 못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의 하나로 장애인 야학이 있는 것이다. 학교에 다시 가는 것과는 다른 것. 일반학교에 장애성인이 갓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미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다. 성인장애인야학의 교육체계도 인정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던 것. 특수교육담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수 차례 이야기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이미 평생교육시설이야기가 있다. 특교법에 또 다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것은 다른 맥락이다.

이미 근거가 있고, 선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 이미 인천의 경우에는 등록 이전에도 지원이 된 바 있다. 조건부로 시설비를 지원하고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꾸 평생교육쪽으로 넘기지 말고 특수교육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해주십시오. 우리를 기피인물로 보지말고 장애인 교육에 방점을 찍고 정리해주십시오.

특수교육 장학관) 대구, 서울, 인천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더니, 등록이 되어있다.

박경석 상임이사) 등록은 2009년에 되었고, 지원은 2004년부터 였다.

특수교육 장학관) 전혀 지원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 검토해보고 협의를 해 봤다.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는 것 아닌가?

박경석 상임이사)

등록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 등록이 되면 지원하겠다고 하고, 우리는 등록 이전에도 지원을 했던 역사적 맥락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음

재경 경기공투본 집행위원장)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 그 전에도 명확하게 지원했던 사실이

있으니, 등록 이후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단정하지 말라. 교육감도 의중이 있었고, 과장님도 긍정적인 의중을 주었다. 지금 장학관이 제일 답답하다.

특수교육 장학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

동두천) 몇 시간째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교육 장학관) 나도 답답하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재경 경기공투본 집행위원장) 다음주중에 간담회를 잡고 가려고 했었는데, 난감한 부분이 있다. 우리의 요구는 차기 추경예산에 적용될 수 있는 시일이 있기 때문에 다음주 정도에 간담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특수교육 장학관) 간담회를 한다면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그건 협의 후에. 시간까지 약속을 할 수 없다.

박경석 상임이사) 가안으로 17일날으로 하자.

특수교육 장학관) 연락을 해주겠다.

재경 경기공투본 집행위원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음주 중에 언제 간담회를 잡겠다는 연락을 주시라.

특수교육 장학관) 금요일까지 날짜를 잡아주겠다.

재경 경기공투본 집행위원장) 휠체어 장애인들이 화장실 이용도 힘들다. 그것도 고려해서 좋은곳으로 장소를 잡아달라.

* 금요일까지 간담회 날짜를 잡아서 박경석 상임이사님께 전달하기로.

* 간담회는 다음주 중에 하루를 잡는 것으로 결정